

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이 선교와 일치 의 부름은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 의 모태가 된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 의 비전이기도 했습니니다. WCC가 추구하는 가시적 일치는 이런 선교적 목적 때문이지 결코 세계 교회 의 외형적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7. WCC는 교리적 일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WCC는 종교 간 의 교리를 섞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니다. WCC 밖에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도 그렇지만 WCC 안에 있는 양대 교회, 즉 정교회와 개신교회도 결코 서로 의 교리를 섞을 수 없다는 입장 때문에 교리적 일치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물며 종교 간 의 교리를 섞는 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WCC는 종교 간 의 대화와 협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천도교, 불교, 기독교가 민족 의 독립을 위해 함께 독립선언을 했듯 이 정의와 평화, 그리고 인류 의 화해를 위한 인류공동 의 과제 때문에 종교 간 의 대화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니다. 종교 간 의 협력과 다원주의는 다릅니니다.

WCC는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통해 기독교 신앙 의 진수를 더욱 명확히 이해하기도 하고 타종교에 대한 물이해로부터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종교적 교리를 넘어선 인류 의 공동 의 문제에 대해 공동 의 대처를 하는데, 그것도 신앙공동체 의 차원에서 협력을 하는 모습은 세속사회가 종교에 대해 깊은 신뢰를 하게 하는데 선교적 도움이 되게 할 것입니니다.

발행인	윤보환
편집인	오일영
편집기획	사회농어촌환경부
발행일	2019년 8월 31일

바로 복음을 왜곡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감시해야 할 것은 공산체제야래 있던 교회들의 보존을 위해 WCC가 엄청나게 노력했고 그 노력으로 공산권이 무너졌을 때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북한 교회가 세계교회와 연결되는데도 WCC가 정치적 장벽을 무릅쓰고 교제를 시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편, WCC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WCC 중앙위원회를 통해 “우리는 유엔이 세계질서의 도구로서 이 침략에 맞서서 신속한 결정을 취해 줄 것과 모든 회원 국가가 지지하는 경찰 조치를 허가해 줄 것을 권고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4. WCC는 전인적인 선교를 지향합니다.

WCC 안에는 선교와 전도, 기독교교육 이외에 거대한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과 직제’로 신앙과 일치를 강조하는 면이고, 다른 하나는 ‘삶과 일’로서 복음의 사회적 증언을 강조하는 측면입니다.

한국에는 WCC가 70, 80년대의 사회상황과 관련해 인권과 민주화 등에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WCC의 사회선교적 측면만 부각되어 WCC는 사회선교에만 관심이 있다고 알려진 듯합니다. 그러나 WCC 안에는 신앙과 일치를 강조하는 흐름과 복음의 사회적 증언을 강조하는 흐름이 팽팽하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선교에도 두 흐름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인권이나 민주화 같은 사회적 증언이고 또 하나의 흐름은 사회봉사(Diakonia)입니다. WCC의 사회선교에는 봉사의 면도 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WCC의 사회적 증언과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부분은 WCC의 사회적 증언은 신앙적 기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WCC의 사회적 증언은 사회참여 차원이 아니고 복음증언의 차원입니다. 다시 말해 WCC의 사회참여는 복음에 대한 신실성 때문에 이뤄집니다. 일례로 나치주의에 대한 독일 고백교회의 바르멘선언이 복음의

정치적 해석이 아닌 정치적 상황에 대한 복음의 신앙고백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WCC 창설 이후 바르멘선언과 같은 형태의 고백 신앙 운동의 중심에는 남 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분리정책이 있었습니다. WCC가 유살라 총회 이후 인권주의 철해를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WCC의 사회증언은 교회의 사회참여, 정치참여가 아니라 그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복음의 선포, 신앙의 증언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5. WCC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으로 매도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 WCC의 신학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WCC는 회원교회들의 다양한 신학이 서로 대화하고 조정하고 공통의 신학적 견해를 찾아가는 문자 그대로 ‘협의체’(Council)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엄격히 말하면 WCC 고유의 신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WCC 안에는 여러 신학노선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자유주의 신학도 존재하고 엄청나게 보수주의적 신학도 존재합니다. 정교회의 신학은 한국의 보수신학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화원교회 중에는 복음주의교회, 성령운동인 오순절 교회도 상당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6. WCC는 가시적 일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WCC가 추구하는 그 가시적 일치란 외형적 일치 혹은 구조적 일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WCC가 추구하는 가시적 일치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도 하나가 되어 하나이신 하나님 안에 있길 원하셨고 그 목적은 세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

WCC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WCC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고백을 전제로 합니다.

WCC는 헌장 제1조에서 “세계교회협의회는 성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며 구주로 고백하며,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의 소명을 함께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교회들의 교제(Fellowship, Koinonia)이다.”라고 그 신앙적 근거와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WCC는 같은 헌장에서 “한 믿음, 한 성례전적 교제 안에서 의 기시적 일치, 예배와 공동생활, 세상을 향해 함께 증언하고 봉사함으로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과 기능을 밝히고 있습니다. WCC는 이처럼 성경,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위에 굳게 선 세계교회 연합체입니다. WCC가 추구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은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17:21)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성취하기 위한 세계교회의 공동 노력입니다.

WCC에는 기독교를 사칭하는 온갖 단체가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예수를 안 믿고 다른 종교를 믿는 단체도 들어와 있지 않느냐고 극단적인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터무니없다는 것은 WCC의 회원교단이 되는 과정만 살펴봐도 드러납니다. WCC의 회원이 되려면 먼저 헌

장 제1조에 해당하는 교단의 신앙고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앙위원회 회원 영입위원회가 이를 심사하고 통과되면 해당 국가에 이미 회원이 되어 있는 교단에 신청교단에 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만일 입회신청을 한 교단이 정당한 교단이 아니라면 WCC는 결코 그 교단을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 WCC는 선교와 전도를 추구합니다.

1910년 에딘버러에서 선교와 일치를 위해 전 세계교회가 함께 모인 세계선교대회가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의 직접적 배경인 것은 당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지금도 WCC안에는 에딘버러 대회의 전통을 이어오는 “선교와 전도위원회”(Commission on World Mission and Evangelism)가 지속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무국에는 ‘선교와 전도 일치국’이 설치되어 세계교회의 선교와 전도에 대한 지원과 협력, 선교신학의 성찰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WCC 선교와 전도위원회는 복음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증언되어야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WCC는 총회와 별도로 총회만큼이나 큰 규모로 진행되는 양대 대회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기독교 교리를 다루는 신앙과 직제 대회이고 다른 하나가 선교를 다루는 선교와 전도 대회입니다. 2013년 부산총회에서 도 새로운 에큐메니칼 선교선언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3. WCC는 특정한 정치이념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WCC는 교회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이념도 지향한 적이 없습니다. WCC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인이 아닌가하는 점입니다.

WCC는 냉전시대 때 공산체제 속에 있는 교회도 회원교회로 받아들였고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어떤 정치체제 속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좌익단체라고 한다면 그 주장은

WCC 총회는 WCC의 최고 치리구조이며, 총회 기간 중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습니다.

- 1) 예배 - 아침과 저녁 예배 시간에 다양한 교회 전통에 따라 신실하고 특징있는 방식으로 드렸습니다. 사전에 등록된 모든 방문자들이 세계교회 대표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 2) 회무 - 세계교회의 825명 대표들이 함께 모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를 다루었습니다.
 - ① 교회와 세상을 향한 신학적 선교과제 성찰
 - ② 세계교회의 교제와 일치
 - ③ 세상을 향한 세계교회의 공동증언
 - ④ 차기총회 때까지의 주요정책 결정
 - ⑤ 150명의 중앙위원 선출
- 3) 에큐메니칼 대화 - 4일 동안 에큐메니칼 대화(Ecumenical Conversations)를 진행하여 21세기 교회와 에큐메니칼 운동의 공동관심사에 관한 심도있는 주제를 다뤘었습니다. 전체 21개 주체 가운데 “한반도 평화통일”이 독립적인 주제로 들어가 세계교회 동역자들에게 한국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기도했습니다.
- 4) 마당(Madang: Workshops) - 한국의 전통 공간인 ‘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교회에서 준비한 다양한 관심사가 전시회, 워크숍,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전체 171개의 마당 가운데 한국교회에서 준비한 37개의 마당이 열렸고, 감리교회에서 47개의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 5) 한반도 평화 프로젝트 - 세계교회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원하는 평화 화열차 운행(베를린 → 모스크바 → 북경 → 평양 → 서울 → 부산) 및 평화협정 운동, 평화 콘서트와 평화라이딩이 진행되었습니다.

6) 세계 에큐메니칼 신학원 - 전 세계에서 선발된 약 200여명의 신학생들로 구성된 “세계 에큐메니칼 신학원”이 열려 세계의 젊은 신학도들이 세계의 신학자들과 직접 토론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WCC 부산총회의 열매들

WCC 총회를 통하여 한국교회와 감리교회가 얻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첫째, 명실 공히 받는 교회(Receiving Church)에서 주는 교회(Giving Church)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상 선교 받은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전환된 것은 한국교회가 최초일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지만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이기도 합니다.

둘째, 이번 총회를 통하여 세계교회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중심의 신앙과 신학을 벗어나 세계적인 안목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금까지 세계교회를 이끌어온 서구교회의 지도력과 함께 한국교회가 21세기에 세계교회에 지도력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한국교회의 영성, 선교, 섬김, 정의, 평화, 생명목회를 세계교회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성장한 한국교회의 성숙한 모습을 아시아와 세계에 알렸다고 믿습니다.

WCC 부산총회

2013년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산에서 WCC 10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근본주의 기독교인들과 이단 세력이 가세하여 왜곡된 비판과 비방으로 막았지만 2,800명의 해외참가자와 8,500명의 국내 참가자들이 참가하여 WCC 역대 총회 가운데 가장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감리교회는 640명이 사전등록을 통하여 참가하고, 한국준비위원회와 에큐메니칼신학원, 마당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부산총회는 「선교와 식민지」라는 등식을 벗어나 “선교받은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탈바꿈한 지역에서 개최된 최초의 총회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WCC 총회를 한국의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 1) 한반도의 분단 상황 -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개최함으로써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를 선포하는 의미.
- 2) 한국교회의 성장과 영성 - 개신교가 전래된 지 130여년 만에 급속한 성장을 거듭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관한 관심
- 3) 한국교회의 미래성 - 최종 유치경쟁을 벌인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비해 젊고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
- 4) 종교 간의 평화로운 공존 - 기독교, 불교, 유교 등 여러 종교가 큰 갈등과 충돌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한국사회에 대한 관심.



God of life,
lead us to
justice and peace

World Council of Churches
10th Assembly
30 October to 8 November 2013
Busan, Republic of Korea

부산총회 공식 엠블럼

부산총회 공식 포스터



WCC의 교회론

1948년 네델란드 암스텔담에서 창설된 세계교회협의회(WCC)는 협의회(The Council)의 성격, 협의회와 회원교회와의 관계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1950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WCC 중앙위원회를 통해 깊이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당시 토론토 중앙위원회는 “교회, 교회들, 그리고 세계교회협의회(The Church, the churches and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란 성명서를 채택했는데 ‘토론토 성명서’로 알려진 이 문서는 이후 WCC의 성격과 교회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WCC가 아닌 것’과 ‘WCC의 기초가 되는 강령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WCC가 아닌 것’으로 다섯 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WCC는 단일교회(Super Church)도 아니고 결코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2. WCC의 목적은 교회 간의 연합을 협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교회 간의 연합은 (연합을 원하는) 교회의 주도로 교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일 뿐 (WCC가 하는 일은) 교회가들이 서로 접촉하고 교회 일치 문제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촉진하는 일이다.
3. WCC는 특정한 교회 개념에 기초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WCC는 교회론적 문제를 예단하지 않는다.
4. WCC의 회원이 된다고 해서 그 회원교회가 자기 교회의 개념을 상대화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5. WCC의 회원이 된다고 해서 교회일치의 본질에 관한 어떤 특정한 교리를 수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명서는 WCC가 단일교회를 지향하지 않으며, 어떤 특정한 신학이나 특정한 교회개념에 의해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WCC 안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2013년 WCC 부산총회의 마당 프로그램

어떤 특정 교회론이나 신학의 목소리가 높을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서로 다른 교회론과 신학들이 대화하고 토론하는 곳이지 어떤 특정 신학과 교회개념을 규정하는 곳은 아닙니다.

또한, WCC의 기초가 되는 강령들을 다 종합하면 결국 WCC에 가입하여 회원이 된다고 해서 WCC가 규정하는 어떤 획일적인 교회론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회원교회는 자기 교회가 믿고 있는 교회론과 치리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교회를 모두 부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 안에서 진정한 교회의 요소들이 있을 수 인정하고 다른 교회에게도 부과하신 주님의 사명을 확인하고 성부와 성자, 성령이 맡기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기록한 교제를 하자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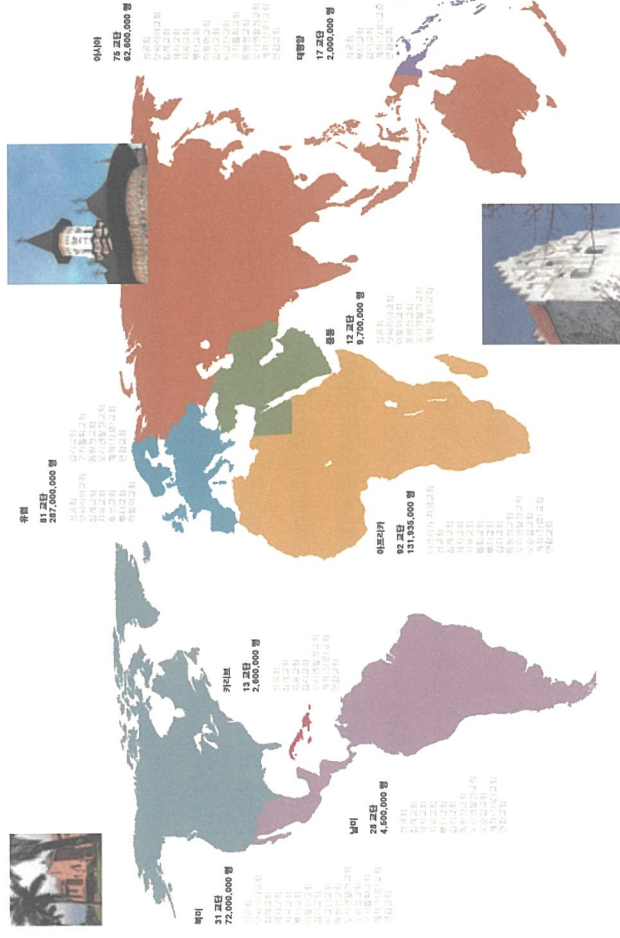
WCC의 교회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절대적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서로 상대적인 교회들이 대화하며 교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기록한 교회를 바라보며 ‘함께 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봉사하며, 함께 자라자’는 것이 WCC의 정신입니다.

WCC의 교회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절대적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서로 상대적인 교회들이 대화하며 교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기록한 교회를 바라보며 ‘함께 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봉사하며, 함께 자라자’는 것이 WCC의 정신입니다.

WCC 회원교회들

현재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전 세계 1백40개국에 속한 3백49개의 교파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WCC는 '교회들의 협의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들의 상위기구인 교파들이 회원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교회협의회들은 파트너로서 협의체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5억7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기독교 협의회로서 WCC는 세계에서 가장 폭넓고 포괄적인 에큐메니칼 기구이며, 정교회를 비롯해서 성공회, 개혁신교, 침례교회, 루터교회, 감리교회, 연합교회와 오순절교회까지 회원교회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 등 4개 교파가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륙별 회원교파 현황을 보면 아프리카 대륙이 92개 교파, 1억3천2백만여 명의 교인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유럽대륙이 81개 회원교파로 뒤를 잇고 있지만 교인수는 2억8천7백만여 명으로 아프리카를 상회합니다. 아시아 교회는 75개 교파가 참여하고 있으며, 교세는 6천2백6십만여 명 수준입니다. 북미 대륙은 31개 교파(7천2백만여 명), 라틴아메리카 대륙은 28개 교파(4백50만여 명), 태평양과 중동은 각각 17개 교파(20만여 명)와 12개 교파(9백70만여 명)가 WCC에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3년 WCC 부산 총회 모습

2

에큐메니칼 운동과 교회일치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말하는 '일치'란 무엇일까요? 이 일치에 대해서 혹자는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구조적인 일치라고 주장하면서, 기구적 에큐메니칼 운동의 중심에 있는 WCC가 결국은 '슈퍼처치'(거대한 하나의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1961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WCC 3차 총회가 채택한 선언문에서 '일치'에 대한 세계교회들의 입장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선언문에서는 "교회의 일치"는 그리스

도 안에서 단 한 번에 완전하게 주어졌다. 그 일치가 아버지께서 성령 안에서 아들과 함께 이루시는 삼위일체적인 일치에 근거한 것이다. 교회의 결정적인 근거인 이 일치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교회사에서 나타난 분열로 인해 이 일치가 무색해져 버렸다. 따라서 일치는 '하나님의 은사인 동시에 우리들의 과제'이다. 교회는 이 본질적인 일치를 가시적인 것으로 만들고 또 친교와 증언, 그리고 봉사를 통해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워지도록 부르심을 받는다.'라며 일치의 개념을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본다면 WCC가 말하는 일치는 교회들 사이에서 관계된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치는 기본적으로 '교회가 교회로 바로 서는 것'(being the church)과 관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돌리고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교리와 질서, 그리고 삶에서 나타나는 교회들의 차이점과 반대되는 견해들을 상대화시키고 약화 시킴으로써, 교회들이 친교를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한 채 차이점과 반대 견해들을 줄여 나가는 것이 일치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말하는 '일치'는 적어도 신앙에 대한 공동의 고백, 성례전, 그 중에서도 특히 세례와 성만찬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실행, 사역에 대한 상호 인정, 하나의 교회의 각 부분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동의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구조 등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데 폭넓은 동의가 이루어져야만 실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WCC) 소개

세계교회협의회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는 “성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며 구주로 고백하며,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의 소명을 함께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교회들의 교제”입니다. (WCC 헌장 제1조)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세계의 흠어진 모든 교회의 일치를 도모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대표적 기구입니다. ‘에큐메니칼’(Ecumenical)은 헬라어 ‘오이쿠메네’(oikumene)에서 시작됐으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온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이쿠메네는 신약성경에 몇 차례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이쿠메네에 뿌리를 두고 있는 에큐메니칼은 연합과 일치를 지향하는 교회의 본질에 속하는 개념입니다.

교회의 일치와 연합, 이를 통한 선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바로 세계교회협의회(WCC)를 통해서입니다. 지금의 WCC는 1910년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에서 태동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당시 세계교회들은 ‘국제선교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와 ‘신앙과 직제’(Faith and Order), ‘삶과 봉사’(Life and Work) 등 3개의 지속가능한 회의를 구성했고, 이중에서 ‘신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로고와 제네바 본부

앙과 직제’와 ‘삶과 봉사’는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텔담에서 전 세계 1백50여 개 교단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WCC 1차 총회에서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국제선교협의회는 1961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WCC 3차 총회 때 WCC와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WCC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개신교회를 비롯해서 정교회와 가톨릭까지 참여한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확산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총무로 섬기며 감리교회의 전통 위에서 모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감리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한 영혼에 대한 구원사역과 함께 한국 사회 곳곳에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복음의 위로와 능력을 전하기 위하여 힘써 왔습니다. 특별히 교회연합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교육, 의료, 문서선교의 일선에서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왔으며 다른 교단들과 함께 협력하며 한국교회의 성장과 한국의 복음화에 기여해 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감리교회는 1948년 세계교회협의회(WCC) 창립회원으로서 참여하여 지금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 한국교회가 유치한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일은 한국감리교회 역사에 또 하나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부산 총회 개최 시에는 감리교회의 여러 목회자

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상임위원회와 중앙위원회, 프로그램위원회에 참여하여 성공적인 총회 개최의 일익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교회와 감리교회 일각에서 제기한 세계교회협의회(WCC)에 대한 비난과 비방, 반대의 목소리가 감리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상황에 이르면서 세계교회협의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교육 및 소개하는 자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에 이 책자를 펴내게 되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에 대하여 신앙에 의거하여 자유로운 입장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속한 한국감리교회가 참여해 온 역사와 역할에 대하여 바르게 아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한국감리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항상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2019년 8월 31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총무 오일영



세계교회협의회 바로 알기

발간사	2
1. 세계교회협의회(WCC) 소개	4
2. 에큐메니칼 운동과 교회일치	6
3. WCC 회원교회들	8
4. WCC의 교회론	10
5. WCC 부산총회	12
6. WCC에 대한 오해와 진실	16

2013 WCC 부산총회 개막식 광경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세계교회협의회 바로알기

Introduction to the WCC



God of life,
lead us to
justice and peace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